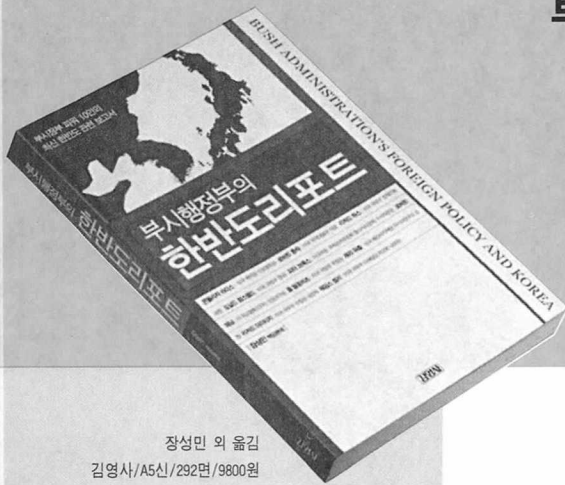


부시정권의 한반도 정책 가능케 하는 정책 자료집

콘돌리자 라이스 외의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를 읽고

김명섭 |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장성민 외 옮김
김영사/A5신/292면/9800원

이 책은 부시행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했던 글들을 모은 자료집이다. 지금까지 한미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한미관계에 대해 심각한 국론분열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책이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함께 대처하는 초당적 외교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 하사관이었던 마태오 신부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미군 비행사와 인민군 가운데 인민군을 먼저 구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사상의 동지이며 조국의 은인인 그 비행사보다는 적이나마 우리와 피를 같이 한 동족을 선택했습니다. 이 인민군은 우리와 같은 조상과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는 동족이며, 우리가 통일시켜야 할 조국의 아들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형제입니다.”

마태오 신부는 국가적 수준에서는 해병대의 일원으로 북한과 싸웠고, 국제적 수준에서는 가톨릭에 귀의했지만, 개인적 수준에서는 결국 미군 비행사보다는 인민군에게 먼저 구조의 손길을 뻗어야만 했던 부정함을 보여줬다.

부시행정부의 '싱크탱크' 논문 모아

최근의 북미관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는 개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부정함을 생각하게 된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북한을 선택하더라도 국가적 수준에서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정함, 반대로 개인적 수준에서는 북한을 증오한다 할지라도, 국가적 수준에서는 북한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부정함, 국가적 수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국제적 수준에서 북한을 옹호해야 하는 부정함들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존재구속성을 생각할 때, 국제적 수준의 문제를 다루는 데 개인적 수준의 분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적 수준에서 출발해서 국제적 수준을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을 분리해서 전개되는 논의는 왜 이리도 귀한 것일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미관계라는 주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에 차분히 접근하게 해주는 분석 자료가 충분치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김영사)는 부시행정부의 주요인사들이 부시행정부의 출범에 앞서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놓은 훌륭한 자료집이다. 이 책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핸드북과 같은 성격을 띤다. 무엇보다 북한을 포함한 한미관계의 현안에 크건 작건 연루돼 있는 현장(관, 정, 언)의 많은 사람들이 차분하게 이 책에 수록된 객관적 자료들을 읽어보고 논의를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단 개인적 수준을 벗어나 국가이익이라는 국가적 수준에서 북미관계라는 국제적 문제를 접근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논의 전개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아니겠는가?

현재 한국사회는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심각한 국론분열을 겪고 있다. 여당측 인사들은 부시행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과장의 폭

을 축소시켜려는 개인적 수준의 열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한미정상회담에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학부수준의 학생들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부시행정부 주요인사들의 언급과 그들의 경력을 본다면 부시행정부의 태도가 클린턴을 그리워하게 만들 정도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이파티잔십'

한편, 야당측 인사들은 대북포용정책과 현정권의 연결관계에만 집착해 더 이상 민족의 비전이나 대계의 관점에서 북미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요즘 야당측 인사들이 차기대권구도와 관련 속에서 북미관계를 보고 있지만, 자신들의 논리를 그렇게 한계지우면 지울수록 차기대권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선의의 패권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는 바이파티잔십이라 부르는 초당적 외교였다. 덩치가 큰 미국도 국제적 수준의 문제를 다룰 때는 국내적 수준이나 개인적 수준에서 벗어나 힘을 합쳐왔던 것이다. 정작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 책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함께 펼쳐놓고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함께 대처하는 초당적 외교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